

초국가주의와 거주국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윤경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 전공
demianne@korea.ac.kr

I. 머리말

II. 초국가주의: 범위, 조건, 유형

III. 초국가주의와 모국 연계활동

IV. 거주국 사회통합과 초국가주의 활동

V. 맺음말

I. 머리말

1990년대 후반 들어 여러 학문영역에서 초국가적 전환(transnational turn)-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장소 그리고 제도 사이의 연계에 주목하고, 국가의 경계를 연결하는 활동, 실천, 패턴이 강화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단일 국민국가 차원의 분석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Sassen, 1991; Basch et al., 1994; Bauböck, 1994; Castells, 1996; Guarnizo, 1997; Foner, 1997; Beck, 1998; Levitt, 1998; Portes, 1998; Vertovec, 1999). 이주 연구 영역에서도 이주자를 바라보는 분석틀로 이주자를 거주국 내에서만 파악하는 관점을 탈피하여 거주국-이주자-모국의 3자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초국가주의 분석이 대두되었다. 첨단 과학기술로 시공간을 압축시키는 커뮤니케이션, 항로개설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모국과 정착국의 경계를 오고 가는 최근의 이주 양상은 범위, 규모, 패턴에서 점차 증가하고 다원화되면서 초국가주의 접근은 유용성을 갖는다.

영구정착의 단일한 형태의 이민양상보다는 생애 기회와 경험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장기 체류형태와 이민자의 2-3세의 모국으로의 귀환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이주현상은 주요 연구대상의 범위를 이민자 집단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일시적이며 순환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자 집단으로 넓히고 있다. 기존의 이민연구(immigration studies)는 초국가적 이주 연구(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로 확대되어 초국가주의 논의를 활발히 전개시키는 지적 토양이 되고 있다.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학계를 비롯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종종 그 뜻이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거나 다른 의미와 중첩되어 혼란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혼동을 주는 ‘국경 가로지르기의 특성을 지닌’ 활동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활동 모두를 지칭하지만 모국 지향적 특성을 갖지 않는 반면, 이주 연구에서 ‘초국가주의’, ‘초국가적 활동’은 이주자와 모국을 연결하는 모국 지향적인 특성을 지닌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국가주의 현상은 분명한 영토적 선호가 있으며, 보편적 규범의 중요성보다는 특정 종류의 주의(isms)와 믿음을 강화시키고 재창조하며,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적인 사회적·지리적 공간 속에서 발생한다.

더욱이 위로부터 초국가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재외선거제

도가 한국에 도입되고 2012년에 처음 실시되면서 모국 선거에 실질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한 재외한인의 초국가주의 활동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한인들의 참여율은 전체 유권자의 7.1%로 유권자 등록자 중 71.2%인 15만 8,235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75.3%에 해당하는 29만 4,633명이 참여하는 등 모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사실상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도입논의가 구체화된 2000년 후반부터 한인이주자 개인적 관심 차원을 넘어 한국 정치단체의 해외 방문, 정치단체 결성 등 높은 수준의 제도적 참여도 급증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증가하는 모국 연계는 -제도적 수준의 모든 차원에서- 일시적 현상이기 보다는 앞으로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인의 모국 연계와 같은 초국가주의 관점의 학술적이며 실질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여전히 초국가주의가 디아스포라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초국가주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은 초국가주의 관점에 대한 개념적 지형을 짚어내고 초국가주의 논의가 펼쳐내는 이론적 특성과 현실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주자의 모국 간의 연계가 초대하는 거주국-이주자-모국 간 3자적 관계에서 도출되는 논의지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초국가주의 개념을 범위, 조건, 유형으로 개념적 범주를 구체화하는 것에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초국가주의 관점을 취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반영하여 논의영역에 따라 초국가주의 활동을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초국가주의라는 분석틀하에서 전개되는 이민자의 모국 연계활동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① 초국가적 네트워크, 사회관계 및 사회적 공간 등을 다루는 사회적 초국가주의를 비롯하여 ② 순환적 노동, 송금, 글로벌 사업가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초국가주의, ③ 시민권, 국적, 모국 정치 등에 관한 정치적 초국가주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초국가주의 접근의 핵심적인 특성은 '이주자와 모국 간 연계(linkage)의 생성'과 '연계를 유지하는 흐름의 동시성(simultaneity)'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다 확장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이 핵심적인 특성을 조명하는 초국가주의 접근은 한편으로는 이주 연구가 이주자-모국 간의 다양한 연계를 질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국과 이주자 간의 관계를 새롭게 질문한다. 다시 말해 이주자의 초국가주의 활동이 동시에 거주국에서의 사회통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중요한 연구질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초국가주의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논의 지점인 거주국-이주자-모국이라는 3자적 관계, 구체적으로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의 충성심과 거주국 내의 사회통합 간 관계에 대한 쟁점을 다루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Schiller et al., 1999; Portes et al., 2002; Guarnizo et al., 2003; Marcelli et al., 2005; Sana, 2005; Snel et al., 2006).

II. 초국가주의 개념: 범위, 조건, 유형

초국가적(transnational)이라는 용어는 이전에도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사용되었으나 특정한 용어 정의 없이 느슨하게 통용되었다(Basch et al., 1994). 초국가주의 분석들은 지금까지 이주자의 삶에서 간과되어온 모국의 측면, 즉 이주자의 모국에 대한 영향력과 동시에 모국의 이주자에 대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모국의 측면을 분석들에 새롭게 추가하는 초국가주의 관점은 이민과 거주국 통합정책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해온 방법론적 내셔널리즘(methodological nationalism)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은 주류 사회과학 내에서 근대적 국가만들기 과정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과정들에 대한 연구들이 마치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의 국민국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이다(Wimmer and Schiller, 2002). 이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을 견지한다면 마치 국민국가 내의 구성원들은 동질적인 가치, 규범, 관습, 제도들을 포함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비역사적 관점이 갖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국가주의 연구는 단순히 관찰의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였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식론적인 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¹⁾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에 발생한 대규모 유럽 이민자 집단에 대해

‘초국가주의’의 용어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간주하거나 초국가주의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가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Foner, 1997). 비록 영구적 정착이 목적인 이민의 경우일지라도 이주의 방향이 일 방향적이었던 적은 없었으며 이민자 집단 역시 항상 모국과 정착국 사이에서 다양한 연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많은 초국가주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듯, 20세기 초 이민자와 모국 간의 연계와 최근의 초국가주의 현상 간의 차이는 밀도, 깊이, 범위에서만 다르다고 본다.

이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여 연구자들은 초국가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이민 시기와는 다른 초국가주의의 선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초국가주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Faist, 1998; Smith and Guarnizo, 1998; Portes, 1999; Portes et al., 1999). 많은 연구자들은 이주자의 초국가적 활동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필요조건으로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과 장거리 통신의 발전을 들고 있다. 최근의 ‘기술적 혁신’이 여러 지리적 장소에 사는 사람들을 묶어내며 초국가적 연계를 지속시키는 동시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장거리 이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빈번하고 빠르며 규칙성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에서 동시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시적 관여는 여기저기 다른 공간으로 분산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출현시키는 역할을 한다(Levitt and Schiller, 2004; Mazzucato, 2000).

그러므로 초국가적 활동의 첫 번째 가설은 거리가 멀수록 그만큼 높은 비용이 부가될 뿐만 아니라 동시성도 떨어지므로 규칙적인 접촉이

1) 초기 초국가주의 학자들은 초국가주의 개념의 기반으로 내세운 연구대상의 범주를 구획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트랜스-이주자(trans-migrant)가 과거의 이민자(immigrant)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트랜스-이주자가 이민자나 모국 귀환 이주자와는 다르게 거주국 사회와 모국 사회의 두 사회 공간에 비동시적으로 공존하면서 거주국-이주자-모국의 3자적 연결에 보다 관여한다고 보았으나(Pries, 2001), 이러한 시도는 과거의 이민자와 현재의 트랜스 이주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만 남겨놓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Kivisto, 2001). 이후 트랜스-이주자라는 새로운 용어의 분석적 유용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들과 이민자 집단을 굳이 구분 짓기보다는 초국가주의 활동의 변이와 정도에 따라 초국가주의 범위를 구획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민자 집단도 충분히 초국가주의 활동의 행위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초국가적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의 조건은 공간들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의 밀도이다. 즉, 모국이 짧은 비행거리에 있고 동시에 응집된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활동을 시작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 활동의 정도도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반면 응집되지 못한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초국가적 활동을 개시할 사회적 자본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초국가적 활동이 저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포르테스와 그의 연구팀(Portes et al., 1999)은 초국가주의 현상을 확립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로 설명하며 초국가주의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이주자와 모국의 대상들을 포함하는 과정이 유의미한 비율로 존재해야 하며, 둘째, 예외적이거나 산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이 존재해야 하며, 셋째, 이전의 개념으로 담아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어야 하며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활동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초국가주의라는 개념을 대표할 만한 활동은 제도화 수준이 낮은 이주자 개인의 활동과 제도화 수준이 높은 모국 정부나 기관의 활동이 해당된다. 모국의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 활동은 이전부터 '경제적 지구화', '국제관계', '문화적 혼성'과 같은 개념하에서 고찰되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초국가주의 개념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주자 개인과 모국 연계의 초국가주의 활동이 이전 이민시기와 차이 나게 존재한다면 각 활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측정하기 위한 초국가주의 활동에 대한 유형화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는데(Itzigsohn et al., 1999; Guamizo, 1997; Levitt, 2001b; Portes et al., 2003), 공통적으로 초국가적 활동이 얼마나 제도화되고 지속적이며, 규칙적이고 패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측 가능한지에 따라 구분되었다. 널리 사용되는 초국가주의 활동에 대한 유형화는 '좁은(narrow) 의미의 활동'과 '넓은(broad) 의미의 활동'으로 나뉜다(Itzigsohn et al., 1999). 이때 강도는 초국가적 활동의 빈번함 정도와 변이를 조작화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초국가주의 활동 범위를 경계 짓기 위해서는 간헐적인 접촉이 아닌 오랜 시간 지속적이며 규칙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직업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았다(Portes et al., 1999).

유사하게 ‘핵심적 초국가주의(core transnationalism)’와 ‘확장된 초국가주의(expanded transnationalism)’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Guarnizo, 1997). 전자는 정기적으로 실천되고 패턴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한 개인의 삶에 통합적인 부분인 활동을 포함하고, 후자는 간헐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주자 삶에 부수적인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활동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좁고 핵심적인 초국가주의(narrow and core transnationalism)는 넓고 확장된 초국가주의(broad and expanded transnationalism)의 산발적인 참여보다 더 지속적이다.

강도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에서 더 나아가 초국가주의 활동의 ‘범위’를 추가할 수도 있다(Levitt, 2001b). 이주자가 참여하는 활동 범위는 ‘포괄적’일 수도 있고, 특정 영역에 ‘선택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활동 범위에 따라 초국가주의 강도와 빈번함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럴 경우 이를 각기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초국가주의 활동을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핵심적인 강도를 지닌 초국가주의 활동이 선택적으로 한 영역에만 국한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강도가 낮은 넓은 의미의 확장된 초국가주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혹은 개인들 간의 초국가주의 활동을 비교해볼 때에도 어떤 사람은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초국가주의 활동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특정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초국가주의는 크게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표1- 강도와 범위에 따른 초국가주의 활동 유형화

		활동 범위	
		포괄적	선택적
활동 강도	핵심적 활동	모국 정당의 구성원, 모국 교회 구성원, 모국 단체의 대표인 초국가적 사업가	거주국과 모국을 연결하는 정당활동을 조직화하는데 다른 영역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모국에 친족 연계 없는 정당당원
	확장된 활동	모국 정치 기부활동, 모국 가족 송금행위	하나의 영역에서만 간헐적으로 활동

자료: Levitt(2001b)

from below)’와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above)’의 두 차원으로 나뉜다(Smith and Guarnizo, 1998).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는 이주자들의 지역적인 풀뿌리 활동들을 지칭하며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는 제도적 행위자들인 초국적 기업이나 국민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활동들을 지칭한다. 제도화 수준이 높은 초국가주의 활동은 풀뿌리방식의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활동과 비교해볼 때 조직, 자원,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초국가주의 활동의 제도화 수준을 발생영역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표1).

III. 초국가주의와 모국 연계활동

이주자의 초국가주의 활동은 모국과의 연계에 놓여 있으며, 추상적인 모국 지향적 이데올로기인 초국가주의가 어떻게 이주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행위로 표출되는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초국가주의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형은 없으나(Al-Ali et al., 2001),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경계를 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Vertovec, 2009). 그런 의미에서 초국가주의 활동은 사회적 행위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고 볼 수 있으며(Itzigsohn and Saucedo, 2002) 대체적으로 초국가주의 학자들은 영역별로 크게 경제적·정치적·사회문화적 초국가주의를 구분하고 있다.

표2- 초국가주의 활동: 제도화 수준

		활동 영역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제도화 수준	낮음	비공식적 무역 소규모사업 장거리 순환이주노동	모국 정치결사체와 제휴 모국 선거 후보자 지지 및 기금조성 모국 시민단체 조성	아마추어 스포츠경기 민속음악가 종교인 방문
	높음	다국적 기업의 투자 관광시장의 발달 모국 은행의 대행	정치적 정당의 대표 이중시민권 모국 정치인으로 선출	국제전시회 대사관에 의한 정기적 문화이벤트

자료: Portes et al.(1999)

1. 경제적 초국가주의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전 지구적 질서와 관계로 재편되는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 강도 그리고 속도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초국가적 자본, 기업들, 그들의 초국가적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이주자들에 의해 촉진된다. 사실상 대규모 이주의 가장 일차적이며 주요한 동기는 경제적인 고려이다. 이주는 이주자 개인적 차원의 경제뿐만 아니라 거주국-이주자 수용국과 모국-이주자 송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모국 발전이라는 주제하에서 이주-송금-모국 발전의 상호적으로 연계된 세 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노동시장의 증화 혹은 분절노동시장으로 야기되는 수요-공급의 원리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빈곤한 국가로부터의 노동력 송출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송출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다시 말해 이주자에 대한 모국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이들의 수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모국으로 보내는 송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부터이다(Lieber, 2010). 이주자들의 송금액이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액수를 상회하는 정도로 규모가 증가하자 송금은 모국의 경제발전에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필리핀,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은 대표적인 노동력 송출국가로 그동안 이주자의 송금액은 모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아시아 지역의 필리핀을 예로 들어보면,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 동포들이 1,000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송금액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의 송금액이 2003년 75억 7,845만 8,000달러에서 2012년 213억 9,133만 3,000달러로 213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필리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수치에 해당된다(필리핀 중앙은행 송금통계, 2012).

이렇듯 이주자의 송금은 노동력 송출국의 경우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노동력 송출국가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의 동포를 모국 발전을 위한 송금자 역할로 인식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투자자의 역할도 부여해 모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삼는 정책을 펴고 있다. 흔히 이러한 정책들은 '글로벌 국가', '세계인재'와 같은 수사적

표현을 구사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초국가주의를 장려하고 모국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이주자에 대한 모국의 우호적인 정책은 이주자들의 초국가주의 활동들이 모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발전될 수 있었다.

송금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비단 송출국 정부만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비정부 국제단체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유엔 산하기구 등의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에 송금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국가의 송금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경제적 초국가주의가 송금이라는 금전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논의되어온 것은 송금이 이주자의 어떤 초국가주의 활동보다 모국에 끼치는 영향이 거대하며 송금의 일차적 수혜자는 모국 정부와 모국에 남겨진 가족, 모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초국가주의의 예는 비단 송금만이 아니다. 전통적인 이주이론의 기본가정이 '남(the south)'에서 '북(the north)'으로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주 발생 원인을 설명하면서 송금과 같은 경제적이며 물질적인 이전(economic transfer)에 관한 논의도 '북'에서 '남'으로의 방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이주자의 모국 송금이 특징적으로 여겨졌던 이주 흐름에 대한 반증의 자료들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특히 가난한 지역의 남에서 남으로의 이주, 부유한 지역의 북에서 북으로의 이주 등 다방향적 이주흐름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초국가주의 학자들 역시 경제적 초국가주의 분석이 부나 자원의 흐름이 북에서 남으로 이전되는 현상에만 국한되어왔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보다 폭넓은 이전의 방향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Guamizo, 2003). 구아니조는 금전적/비금전적 송금 이외에도 첫째, 이주 기업가의 초국가적 연계 즉 물품의 배송, 모국의 음식, 음악, 신문 등, 모국과 연계된 사업의 형성 및 투자, 둘째, 모국의 지역 공동체와 발전의 위한 투자 및 공헌에도 주의를 환기시킨다. 경제적 초국가주의 이전 방향에 대한 귀납적 유형화는 첫째, 북에서 남으로 이전되는 경제적 활동, 둘째, 남에서 북으로 이전되는 활동, 셋째, 북에서 북으로 이전되는 활동 등 세 방향의 이전으로 나누어진다(표3 참조).

표3-경제적 초국가주의: 이전 방향

방향	이유	유형	행위자	수혜자	혜택
북→남	친족 연대 의무 상호호혜성	가족 송금	개인이주자	친척, 친구	가족 부양
		가족투자	개인이주자 가족	친척	가족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가족 웰빙
		공동체원조	이주자 단체	공동체, 로컬 NGO	모국 발전 프로젝트
	이윤추구	사업투자	개인이주자 가족	친척, 친구, 사업파트너	중소규모 사업 확대
남→북	모국 문화 정체성 재생산	모국 물품소비	개인이주자, 종족 단체	모국 경제, 해외 종족 경제	소비재·문화재 서비스 수출
북→북	초국가적 관계의 유지	금전/비금전적 이전, 항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개인이주자 가족 종족 단체 정당	금융, 통신 항공회사 종족 경제	가족 송금, 기업시장의 확대로부터 이익

자료: Guarnizo(2003)

이주자의 초국가적 삶에는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인 행위가 거시적 경제에 연결되어 있으나 이러한 점이 종종 간과되고 있다. 모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주자의 필요는 남에서 북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전 또한 모국 경제와 민족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에서 북으로의 이전은 모국 문화와 정체성을 재생산한다. 북에서 북으로의 이전은 초국가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비경제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이주자들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북-북으로의 이전이 비록 비경제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활동이지만 남-북, 북-남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과를 내며 종족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주자의 경제적 초국가주의 활동의 대표적인 경우는 모국과 거주국을 연계하는 종족 기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주자 종족 기업의 활동은 범위와 규모에 따라 제도적 수준이 높은 위로부터 초국가주의 활동에서부터 수준이 낮은 아래로부터 초국가주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로부터 초국가주의 활동은 초국가적 자본논리에 따른 모국의 자본주의 기업 활동을 들 수 있으며, 레스토랑 소매업과 같은 중간 규모의 종족 기업 활동, 송금, 부동산 투자, 종족 상점과 같은 소규모 경제활동인 아래로부터 초국가주의가 있다. 이주자 종족 기업의 특성을 보면, 첫째, 송금업무와

표4- 경제적 초국가주의: 활동의 귀납적 유형화

	범위와 규모	모국	거주국
아래로부터 초국가주의	가구 단위 활동	송금, 부동산투자, 종족 상점	거리 행사
	중간규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국가적 논리 - 귀환이주자사업, 수출기업 • 초국가적 순환 기업의 모태 - 레스토랑, 소매업 	레스토랑 법률서비스 소매업
위로부터 초국가주의	자본주의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국가적 순환 기업으로 확대 - 제조업,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국가적 논리 - 국제택배서비스

자료: Landolt(2001)

종족 물품을 유통시키는 순환 기업, 둘째, 모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문화 기업, 셋째, 이주자 공동체에 종족 물품을 공급하는 소매업체 종족 기업, 넷째, 모국으로 귀환한 이주자가 거주국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모국에 설립한 미세 기업 등을 들 수 있다(Landolt et al., 1999; Landolt, 2001).

개인적 수준의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이주자의 거주국 내 경제적 적응과 초국가주의 활동 간의 관계를 이론화하고 경험적으로 증명하며, 사회적 자본과 배태(embeddedness)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의 역할을 설명한다.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동기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위치 지어진 행위(Granovetter, 1995)이며, 초국가적 기업(Transnational Enterprises, TEs)의 경우 모국 네트워크로 구축되는 사회적 자본은 초국가적 기업생존과 경제적 적응에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노동력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성의 축을 따라서도 작동된다. 경제적 초국가주의에 대한 분석은 이주를 신자유주의 재규모화 과정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Schiller et al., 2006), 이주자의 활동은 자원의 이전흐름, 공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화를 반영한다.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정치적·사회문화적인 변형을 동반한다.

2. 정치적 초국가주의

이주의 원인—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촉발되지만 이주의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활동들은 정치적인 결과물을 낳는다. 국민국가는 국경 통제라는 정치적 행위를 수반하고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은 정체성, 국민됨 그리고 사회질서를 변화시킨다.

정치적 측면의 제도적 초국가주의는 확장된 정치적 소속개념인 이중 시민권의 허용과 재외선거(overseas voting 혹은 external voting) 실시에 집중된다. 모국 정부의 위로부터 정치적 초국가주의 활동은 이주자의 초국가주의 활동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화시킨다. 모국 국경을 초월하여 작용하는 모국의 확장된 정치적 제도는 두 국가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가로지를 수 있는 이주자의 법적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초국가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중 시민권을 허용하는 모국 정부의 논리는 종종 거주국 정부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이주자 혹은 디아스포라 인구 집단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주요 이주송출국인 멕시코의 경우 미국에 많은 멕시코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국제 정치경제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에게 이중 시민권을 허용하도록 모국의 정책을 바꾸었다.

모국은 또한 모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주자에게 부여하여 하나의 지리적 장소 그 이상에서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로부터 초국가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확장된 정치적 장을 제공한다. 재외선거제도가 대표적 제도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실시하는 분위기이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배경과 이주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범위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재외선거제도를 통해 모국은 이주자들이 모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중시민권과 재외선거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 비우호적이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중 시민권을 반대하는 논리는 첫째, 두 국가 사이에서 이주자의 경쟁적인 충성심을 양산한다는 점, 둘째, 모국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 셋째, 이주자의 거주국 내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넷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주자에게 권리와 기회를 줌으로써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되
는 점을 들 수 있다(Hansen and Weil, 2002). 그뿐만이 아니다. 모국
정치인들은 디아스포라 집단이나 이주자 집단이 모국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 재외선거권이 주어지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이주자 집단이 국내의 정치적 이슈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국내 정치를 반대하고 비난하
는 이주자 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주국의 입장에서 이종의
충성심은 내부의 적(the fifth column)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고 테러리즘
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거주국은 자민족중심주의
나 차별정책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주자 개인의 선거 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적 실천뿐만 아니라
이주자 단체를 형성하고 조직화하는 정치적 활동도 정치적 초국가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Ostergaard-Nielsen, 2001, 2003). 이주자
들은 정치적 활동을 위해 이주자 집단과 관련된 교민단체, NGO, 모국
단체(hometown association)에서 이주자 권익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이주자 공동체와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결성하면서 활발히 전개한다. 이주자 정치형태를 띠는 정치적 초국가주
의 활동은 거주국 단체, 종족 공동체가 모국의 단체와 형성하는 네트워크
가 있으며,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모국 정당과 정치 단체 그리고 공식적
기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주자의 모국 정치활동
을 분석한 사례 연구를 보면, 이주자의 정치적 초국가주의의 활동은 모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불식시키고 민주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Itzigsohn and Villacres, 2008). 이렇게 민주화나 인권 같은
지구적 차원의 정치적 규범과 사상이 국경을 넘어 모국으로 이전될
때 경제적 송금과 대비되는 개념인 '정치적 송금(political remittance)'이라
일컫는다.

정치적 초국가주의의 활동은 제도적 환경과 이주자의 정치적 활동이
영향을 주고받는 위로부터 초국가주의와 아래로부터 초국가주의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주자의 정치적 장은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의 기획 속에서 구조, 과정, 행위가 얽힌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초국가주의

경제적 초국가주의와 정치적 초국가주의의 영역이 비교적 뚜렷하고 분명한 영역적 범주가 있다면, 사회적 초국가주의는 앞의 두 초국가주의를 포괄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을 위한 바탕이 된다. 사회적 초국가주의의 활동은 개인적 관계에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경제적인 영역보다 애착의 정도가 강하며 감정적 밀접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초국가주의는 두 국가 또는 두 도시를 잇는 이주자의 가족, 친족, 친구, 동료, 공동체 등 ‘개인화된 사회적 관계’ 위에 놓여 있다. 이주자의 초국가적 연계가 사회적 초국가주의의 활동을 구체화한다. 초국가적 사회 공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 놓인 집단들 간의 초국가주의의 활동이 재현되는 공간이다. 이주자-비이주자 간 초국가적 연계는 분석적인 차원에서 그림1과 같이 네 가지 범주의 집단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초국가주의 문헌에 나타난 경험적 증거들은 모든 이주자가 초국가주의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국가적 사회 공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집단이 실질적인 분석대상에 해당된다. 그림1에서 모국에 남겨진 비이주자 중에서 초국가적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두 번째 집단과 거주국에 정착한 이주자 중에서 초국가적 사회관계를 지속하는 세 번째 집단이 초국가적 사회 공간 내부에 존재하며, 초국가적 연계를 맺고 있지 않은 첫 번째 집단과 네 번째 집단은 초국가적 사회 공간 외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Carling, 2008). 사회적 초국가주의의 활동은 초국가적 사회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두 집단 간의 ‘관계’와 ‘교환’을 수반하고, 초국가적 사회 공간 외부의 두 집단은 개인화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집단들로 초국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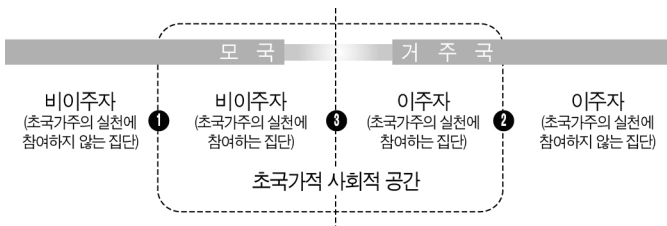


그림1-초국가적 사회적 공간 내·외부 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회적 초국가주의의 가장 주요한 제도는 가족으로 강한 초국가적 연계를 형성한다(Water, 2005; Silvey, 2006; Yeoh et al., 2005; Parreñas, 2005; Ramirez et al., 2007; Scott and Cartledge, 2009). 초국가적 가족이란 이주의 양상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주하는 '이민'의 형태와는 달리 가족의 일부만 이주함으로써 형성된 '분산된 형태의 가족'을 의미한다. 가족의 초국가적 사회적 연계는 구성원 간의 애착, 연대감, 지지, 소속감, 의존감 등으로 불러일으켜지는 감정, 특히 은혜와 죄의식 같은 도덕성의 교환경제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속된다. 사회적 초국가주의 활동의 강도와 내용은 이주자 집단과 이주하지 않고 남겨진 구성원 사이에 만들어진 이산, 초국가적 거주배열로 인해 야기되는 의무불이행, 정서적 부채의식, 또는 물질적이며 감정적인 지지를 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초국가주의는 경제적·정치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모국과 거주국의 사회적 변형을 동시에 동반한다. 두 국가의 사회적 변형을 사회적 송금(social remittance)이라고 지칭하며, 비물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설명한다(Levitt, 1998). 사회적 송금이란 '사회적 변형을 초래하는 아이디어, 행위, 정체성이 거주국 사회에서 모국 사회로, 또는 모국 사회에서 거주국 사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송금의 개념은 이주의 효과가 국경을 넘는 이주자 집단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하지 않고 남아 있는 집단, 공동체, 사회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념이 갖는 유용성이 있다. 사회적 송금은 규범적 구조, 실천의 체계, 사회적 자본의 부분에서 사회적 이전이 촉진되며 모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거주국의 규범구조가 모국 사회에 역할 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 거주국이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경우 거주국의 보다 진보적이고 평등적인 규범이 모국으로 확산되어 모국의 규범 구조와 실천의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George, 2005; Mahler, 1999; Mahler and Pessar, 2001).²⁾

2) 사회적 송금의 유형은 이주자의 특성에 따른 거주국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거주국 주류 사회와 거의 접촉도 없고 새로운 사회를 탐색하려고 하지 않는 관찰자로서의 상호작용, 둘째, 거주국 주류 사회의 일과 교육에 전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용적인 이유로 준거틀을 재조정하는 도구적인 적응자의 상호작용, 셋째, 단순히 생존이나 적응이 아닌 더욱 공격적

IV. 거주국 사회통합과 초국가주의 활동

1. 거주국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사회통합 모형은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기존 주류 사회 질서로 통합되어 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가정하는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화이론은 주류 집단과 소수자 집단 간의 관계 연구에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동화 과정은 다양한 인종/종족 간 관계 주기(race and ethnic-relations cycle)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주민의 집단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며, 접촉(contact), 경쟁(competition), 수용(accomodation),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화의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화라는 개념은 1920년대 미국에서 인종관계를 연구하던 시카고 학파의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동화라는 용어는 용어가 전제하는 종족-문화적 소수자들에게 행해지는 일방적인 적응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으며, 고전적인 동화이론은 이민자들이 모두 주류 사회 일반에 동일한 방향으로 통합된다는 가정에서 비판을 받았다.

동화 개념은 밀턴 고든(Gordon, 1964)에 의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고든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고전적 의미의 동화이론을 전개하였다. 고든의 동화이론에서는 문화적 또는 행위적 동화(behavioral assimilation)와 구조적 측면의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를 구분한다. 문화적 적응은 거주국의 문화적 패턴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을 지칭하며, 문화적 적응에서 문화적 기준이란 중산층의 핵심 문화를 일컫는다. 구조적 동화는 소수 종족 집단의 '일차적' 집단관계와 주류 집단과의

으로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고 선택하며 흡수하는 목적의식에 찬 혁신자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송금의 패턴으로는 첫째, 거주국 내에서 적절하지 않은 모국의 사회문화적 도구를 버리는 방식, 둘째, 주로 관찰자에 해당되는 패턴으로 모국의 사회문화적 도구를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 셋째, 도구적 적용자에 해당되는 패턴으로 거주국의 새로운 아이টে임을 추가하여 실천을 확장하는 방식, 넷째, 혁신자에 해당되는 패턴으로 거주국의 규범, 이주자의 아이디어, 실천을 결합시키는 타가수분(cross-pollination)을 생성하는 방식 등을 들고 있다.

표5- 다양한 동화형태 및 하위과정

동화형태	하위과정 또는 조건
문화적(Cultural) 또는 행위적 동화	주류 사회의 문화적 양식을 따르는 변화
구조적(Structural) 동화	일차 집단 수준에서 주류 사회 제도로 진입
혼인(Marital) 동화	대규모 종족 집단 간 결혼
동일시(Identificational) 동화	거주국 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태도수용(Attitude Receptional) 동화	편견 부재
행위수용(Behavioral Receptional) 동화	차별 부재
시민적(Civic) 동화	가치갈등이나 권력갈등 부재

자료: Gordon(1964)

관계가 동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화과정은 다양한 하위과정의 동화와 단계를 포함하는데 다른 종족 집단 간 결혼, 거주국 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의 발달, 편견 및 차별 부재, 시민적 동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표5 참조). 문화적 적응은 다른 종류의 동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구조적 동화는 더욱 완전한 형태의 동화를 의미한다. 구조적 동화가 일단 일어나면 다른 모든 종류의 동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된다고 설명한다.

간스(Gans, 1979)는 고든(Gordon)의 정적인 동화이론에서 더 나아가 역동적인 세대 간 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직선적 동화(straight-line assimilation)’의 개념을 추가한다. 간스(Gans)의 핵심 논의는 종족 집단의 변화 동력이 세대에 있음을 밝히고 종족 집단의 변화와 같은 동적인 측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종족 집단의 변화가 집단 내적인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종족 집단의 거주 패턴의 전환이나 대규모 이주현상과 같은 외적인 변화의 영향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민자 집단이 세대교체를 하면서 그의 개념이 비판을 받아 직선적 동화개념은 굴곡을 반영한 종족성의 개념(bumpyline theory of ethnicity)으로 수정되었다(Gans, 199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화가 주류 사회라고 불리는 미국 중산층 백인 사회로의 적응과 같은 단선적인 발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전적 동화이론은 비판을 받게 된다. 동화는 비단 주류 사회로만 흡수되지 않으며, 하향동화의 형태로 하위 계층으로 동화되거나 기존 사회와는 분리된 이주자 사회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고전적 동화이론은 각기 다양한 계층화 체계로 진입, 동화되는 종족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분절화된 동화이론(segmented assimilation theory)으로 수정, 발전된다(Portes and Zhou, 1993).

분절화된 동화이론은 경제적인 동화인 직업적인 이동성 등 사회경제적인 동화를 논의한다. 주류 사회에서 직업을 얻는 등 경제적인 진입이 제공된다면 동화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인 동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동등한 지위의 획득이며, 둘째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동등한 지위의 획득은 높은 지위의 직업과 고등교육을 얻는 것이고, 동등한 대우는 희소 가치가 있는 자원을 추구하는 데 주류 집단과 이민 소수자 집단에게 동등한 생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화는 주류 집단에 의한 수용과 주류 집단으로의 적응 등 두 측면을 의미한다. 두 측면은 구체적으로 주류 사회의 대우라고 하는 외부적 측면과 종족 집단의 주류 집단으로의 적응이라고 하는 내부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경제적 동화가 허용되는 정도는 종족 집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집단 내적인 자원의 소유 여부인지, 외적인 환경의 적대적인 정책이나 태도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결국에는 분절된 동화라고 하는 계층화된 위계서열이 생성된다.

한편, 거주국 정부와 주류 집단의 태도는 모든 종족 집단들과 출신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은 않으며 특정 종족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과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거주국의 정책과 주류 집단의 태도에 따라 종족 집단의 종족성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종족 집단에 대한 거주국의 정책이 우호적이어서 희소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는다면 종족성을 강조할 경향성은 낮아진다. 반면 거주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국에 속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으로 분절화된 하향이동을 하고 있거나 주변화되고 분리된 종족 집단이라면 반동적인 종족성을 형성하여 보호적인 종족 집단 범주를 설정하여 보다 많은 기회에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2. 이론적 쟁점: 거주국-이주자-모국의 3자적 관계

이주자의 초국가주의 활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거주국 내의 동화/통합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있다(Basch et al., 1993; Portes, 2001; Morawska, 2004; Itzigsohn et al., 2005; Waters and Jimenez, 2005; Smith, 2006). 선행연구들은 거주국 사회통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초국가주의 활동을 논의해왔으며, 이주자 초국가주의 활동들이 거주국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주자의 초국가주의 활동은 거주국 환경이 이주자의 동화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초국가주의 활동에도 영향력이 있다. 거주국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종족성이 두드러지게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종족성 전략이 유효한 경우 오히려 종족성을 내세워 '반동적 초국가주의(reactive transnationalism)'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주자들이 거주국 적응에 대한 장애를 겪을 때 초국가주의 실천이 양산되어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주자 자신이 거주국 내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실을 겪고, 하향이동을 한다고 느낄 때 초국가주의 활동은 이러한 상실감을 보완해주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Jones-Correa, 1998; Faist, 2002b; Landolt, 2001).

경험 연구 결과는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첫째, 초국가주의 활동이 이민자와 그 후손들의 사회통합을 더디게 하거나 방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서로 연관이 없다고 본다(Sana, 2005; Snel et al., 2006). 또는 지속적인 초국가주의 활동들은 거주국 사회와 분리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주류 집단과의 제한된 상호작용으로 이끈다고 본다.

둘째, 초국가주의 활동이 거주국 사회통합을 저해하거나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Portes et al., 2002; Guarnizo et al., 2003; Marcelli et al., 2005). 이와 같은 두 가지 방향성은 초국가주의 활동의 영향력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초국가주의와 사회통합이 하나의 사회적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동시에 발생하며 서로 엮여 있음을 강조한다(Itzigsohn et al., 2005).

사회통합과 초국가주의 활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입장은 초국가주의 활동이 종족 집단의 계층적 장애와 하향이동을

극복하고 주류 사회 속으로 온전히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동화가 종족 집단의 문화적 특징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초국가주의는 오히려 종족의 상징과 연대성을 통해 자원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초국가주의는 낮은 임금과 지위상승의 가능성이 막혀 있는 직업군으로 하향동화할 때 대안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또한 모국 단체나 정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활동은 주류 사회에서 느끼지 못한 자기 가치감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어 이주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국 정치에 대한 참여가 거주국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이지 않으며(Guarnizo et al., 2003),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가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보다 모국 정치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Portes, 1999). 다시 말해 정치적 초국가주의 활동인 모국 정치의 참여가 그들의 거주국 내에서의 사회통합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초국가주의의 정치적 지향은 이민자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목적의식과 자기 가치감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초국가주의의 활동이 하향동화로의 경향에 효과적인 해독제 역할로 작용한다고 본다.

두 번째 입장은 모국 지향적 초국가주의 활동이 거주국의 주류화 지향성을 소홀하게 하여 거주국 통합을 저해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모국과 거주국의 두 공동체에 중첩하는 멤버십은 이주자의 정치적인 충성심을 양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iller et al., 1999). 정치적인 충성심이 제로섬 게임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국 정치적 활동에 동원되는 과정은 이주자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입장은 초국가주의의 활동이 통합에 반하는 모든 부정적인 표시들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 이민자의 초국가주의 활동은 멕시코인의 거주국 통합을 돕는 미국 시민권 획득이나 유창한 영어 구사와 같은 활동에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Sana, 2005). 공적 담론 영역에서도 종족 집단의 초국가주의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초국가주의 실천이 동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첩되는 멤버십이 하나의 사회에 대한 단일한 소속감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관념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소수 연구결과에서는 거주국 사회통합과 초국가주의 간의 관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유럽에 거주하는 이주자 집단의 초국가주의와 통합을 다룬 연구는 초국가주의 활동이 통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였다 (Snel et al., 2006). 주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집단이 잘 통합되어 있는 집단보다 초국가적 활동에 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주자의 초국가주의 활동과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검증하였다.

표6- 동화와 초국가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모국	거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 경제발전의 역동성 • 내셔널 멤버십과 충성심에 대한 포함/배제 문화 •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에서의 포함/배제의 집합적인 정체성 • 정착국과의 협력에 관심 • 정착국 내의 이주자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및 통신 기술 • 송출국과의 관계/정책 • 시민정치적 통합 모델 • 특정 종족에 대한 포함/배제문화 • 이주자에 대한 정책 • 경제구조 및 역동성
거주국 내 정착 장소에서의 지역조건	
외부적	집단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족 분리/집중이 제도적으로 배태된 정도 • 이주자(혹은 특정 종족)에 대한 문화, 실천 • 정치적 구조의 개방/폐쇄 정도 • 이주자(혹은 특정 종족)에 대한 원주민의 지각 • 지각적인 차원의 이주자 집단의 가시성/비가시성 • 집단 간 사회적 포함/배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크기 및 거주지 집중/분리 • 외국 태생/거주국 태생 간의 비율 •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 이주자/종족 공동체의 제도 정도 • 사회문화적인 인클로저 정도 • 체류/디아스포라의 집합적인 의식 • 내부적인 조직과 리더십 • 거주국 내 집단가시성과 시민자격 • 동일 종족 공동체 성립의 출현과 이주자에게 지 확대된 지원
이주자 개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본(교육, 직업적 기술, 적응, 삶의 목표와 가치), 사회자본(정보와 지원의 네트워크) • 인종/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동 가능성의 예측 • 거주/일에서의 고립, 주류 집단과 접촉, 거주국 거주기간, 체류/영구적 이주상태 • 해방감과 거주국에 대한 감사함, 고향에서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고 존중 여부 • 모국 가족구성원의 수와 부동산이나 다른 소유물의 여부 • 모국을 향한 감정적/이데올로기적인 애착의 강도 	

자료: Morawska(2004)

동화와 초국가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 다양한 동화와 초국가주의 조합의 유형화도 볼 수 있다(Morawska, 2004). 표6은 귀납적으로 도출된 종족 집단의 동화유형과 초국가주의 활동유형을 조사하여 가능한 조합들을 제시한 것이다. 동화의 유형을 주류 사회로의 동화 측면과 종족 집단 경로를 통한 적응 측면으로 세분화하면, 전자의 의미에서 동화는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이 포함되고, 후자의 의미에서 적응은 거주국 중심의 적응, 거주국과 모국의 두 국가 중심으로 적응, 모국 중심으로 적응, 종족 집단 내부로의 적응이 포함된다. 초국가주의 활동은 빈번함의 강도(규칙적/비규칙적), 범위(다방면/단일방면), 영역(공적/사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동화와 초국가주의의 내용과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잠재적인 조합의 유형화를 제시하면 종족 집단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의 동화와 초국가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 종족 집단 간의 동화와 초국가주의 유형화의 차이와 유사성은 모국과 정착국의 맥락, 이주자의 거주 장소에서의 지역조건, 그리고 이주자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표6 참조).

3. 재외한인의 경험과 적응: 거주국 사회통합에서 3자적 관계로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된 거주국 사회통합과 초국가주의 관점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재외한인의 삶과 경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외한인의 이주 전후(pre- and post-migration)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맥락—거주국 요인과 모국 요인—에 관한 고려가 요구된다. 최근까지 진척된 재외한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을 공유하는 거주국 사회통합에 관한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후속연구의 방향은 일국 단위의 분석에서 벗어나 거주국-이주자-모국의 3자적 관계에 관한 분석모형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거주국 사회에 영구적 정착을 목표로 모국을 떠난 이주자의 관심과 주의를 새로운 정착지인 거주국에서 적응하고 주류 사회의 계층화된 위계서열의 사다리에서 어떻게 위치하는가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원주민과 이민자 간의 초기의 접촉 이후로 뒤따라오는 인종/종족 간 관계주기의 양상도 늘 동일하지 않으며, 종족 집단에 따라, 거주국 사회에 따라 다양해지고,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종/종족 간 관계주기의 다양성은 거주국 동화 정도에

밀접히 연관되지만,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면, 동시에 종족적 내셔널리즘의 구성과 발달에도 영향이 있다.

한인이주자의 거주국 사회통합을 위한 동화의 다양한 하위 과정과 단계는 거주국 사회의 여러 주요한 요인—이를테면, 백인이 주류 집단인 서구 지역에서 한인이주자의 생물학적 특성이 지각적인 차원에서 가시적이기 때문에 소위 통과(passing)되지 않아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거나, 거주국 정부가 한인 종족 집단에 펼친 우호적인 정책으로 거주국 국민의 식과 충성심이 조성되고, 거주국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인이주자에 관한 경험 연구들은 거주국 사회의 수용 맥락에 따라 한인이주자의 동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원주민 간 관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독일로 노동이주를 떠났던 한인이주자들은 독일의 거주국 사회의 부족한 일손을 메꾸고, 주류 집단이 기피하는 노동을 기꺼이 떠맡으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않음으로써 거주국 사회와 주류 집단으로부터 환영과 인정을 받았다. 반면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의 거주국 사회통합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중산층 사회계층적 배경을 지닌 한인이주자가 모국에서 획득한 인적 자원과 지위에 합당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채 하향이동의 분절화된 동화를 경험하였고, L.A. 폭동 등 한인 집단에 대항하는 심각한 한인과 흑인의 종족 간 갈등을 보고하였다(Min, 1996; Yoon, 1993). 이와 같은 거주국 수용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초국가주의 활동에 관여하게 할 동기부여와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이주자의 하향이동이나 종족 간 갈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Min, 1996; 윤인진, 2000)은 한인이주자의 종족적 연대성, 모국 귀환에 대한 갈망, 모국에 대한 애착에 대해 맹목적인 가정을 해왔으나 변화하는 한인사회에서 이와 같은 가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앞서 기술한 이론적 쟁점에서 모국의 요인—모국의 내셔널 멤버십의 한인이주자 배제/포함 여부, 종족 공동체의 집합적인 정체성의 지속 여부, 모국이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지의 여부, 모국에 대한 감정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애착의 여부—이 언급되어 있지만, 초국가주의 지향성을 분석할 때 무엇보다 이주자의 ‘트랜스-네이션’의 속성과 ‘모국’과 ‘종족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네이션과 마찬가지로 트랜스-네이션 역시 모국에 대한 집합적인 정체성에 준거점이 있으나 트랜스라는 접두어가 지칭하듯 영토성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이며 상상적인 것임을 상기시키며 영토-네이션-정체성의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근대의 네이션 집단이 동일 언어에 기반한 상상의 공동체 혹은 고안된 질서 속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되었다면, 초국가적 공간 속의 트랜스-네이션 집단은 다층적 정체성을 지닌 복수 집단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이주자의 초국가주의 활동을 분석한 최근의 경험 연구가 시사하듯 조선족과 같은 트랜스-네이션 집단의 모국 지향성은 모국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나 귀환하고 싶은 내셔널리즘에 대한 열정이나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반내셔널리즘(anti-nationalism)을 지닌 네이션 집단일 수 있다. 고향에 대한 향수보다는 도구주의적 동기에 의해 발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Lee, 2017). 따라서 트랜스-네이션의 속성은 초국가주의를 단순히 장거리 내셔널리즘(long distance nationalism)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한인이주자의 초국가주의 지향성을 분석할 때 네이션-정체성의 연결고리에 뚫려 있는 다공성(porosit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인이주 경로가 제3, 제4 국가로 다원화되는 최근 경향은 네이션-정체성의 연결고리에 뚫려 있는 다공성(porosity)과 그 산출물이 더욱 부각된다. 다공성으로 점철된 트랜스-네이션의 종족 정체성은 영토성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다른 사회적 재현과 마찬가지로 모국과 거주국 환경에 의해 사회적으로 양산되고, 수동적으로 전해지는 유산이 아닌 구성주의적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Page et al., 1993).

V. 맺음말

초국가주의의 관점은 내셔널리즘의 핵심적 구성체로 작동하던 '네이션-스테이트(nation-state)' 간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하면서 근대적 산물인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 속에 놓인 국민(民, nation)-국가(國, state) 간의 비판적인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한다. 흔히 언급되는 디아스포라 개념은 근대 국민국가의 모델에 근거하여 모국에 매우 강하게 정박하고 있음을

합축한다. 종종 모국을 잃었거나 모국에 접근할 수 없을 때 모국과의 완전한 단절에 따른 향수가 질게 배어나는 개념이다. 모국과의 단절은 모국과의 연계를 고정시키는 도상에 의해서, 즉 영토적 표시, 기억의 장소들을 창출해냄으로서 보상된다. 그러나 초국가주의는 모국과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모국이라는 곳에 다시 뿌리내릴 필요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초국가주의 관점은 재영토화된 국민-주권-영토 모델에 근거하여 이주자는 트랜스-네이션의 속성을 갖고 거주국과 모국의 두 사회에서 평행적이며 통합적인 삶을 산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분석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이며 경험적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첫째, 일국 단위를 중심으로 거주국 사회가 제공하는 한인이주자의 경제활동, 생애 기회나 기회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이주자의 거주국 사회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상정한 점이다.

둘째, 한인인구 집단을 디아스포라로 상정하고 한인이주자의 모국 지향성을 당연한 것으로, 혹은 모국에 대한 감정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애착으로 가정해온 점이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국 귀환 행렬이 줄어들고, 한국과 거주국을 잇는 초국가주의 활동에 관여하는 한인이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변화에 맞춰, 한인이주자 집단의 거주국 적응이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머물기보다는 초국가주의 활동과 더 나아가 거주국 사회통합과 모국과의 연계를 연결 짓는 확장된 분석이 요구된다.

덧붙여, 이주자 집단의 정체성과 지향성은 현실적으로 거주국의 주류 집단 간 관계를 통해 정립되지만, 동시에 모국의 주류 집단인 모국 태생 한국인 간 관계를 통해서도 정립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거주국 사회의 주류 집단의 수용과 관련되어 이주자 집단이 거주국 내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으면 정체성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소속감이나 자존감을 형성할 수 없게 되므로 배제와 차별 경험은 종족 집단의 '반동적 종족성(reactive ethnicity)'을 발전시키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한다(Portes, 1999). 반동적 종족성은 종족성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배제와 불이익이라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거주국과 모국을 잇는 초국가적 종족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종족성을 강조하는 모국 지향성 전략으로 발전된다고 보지만, 모국 귀환의 과정에서 모국 태생

한국인과의 첫 접촉 이후 뒤따르는 동족 집단 간 관계주기의 적대감은 거주국 지향적 전략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주자의 지향성은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거주국과 모국의 양자 요인의 적대적/우호적 관계에 의해 유동적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Basch, L., Schiller, N. G., Blanc, C. S.,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Langhorne, PA: Gordon and Breach, 1994.
- Bauböck, R., *Transnational Citizenship: Membership and Rights in International Migration*. Aldershot, UK: Edward Elgar, 1994.
- Bauböck, R. and Faist, T., *Diaspora,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 Faist, T.,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b.
- Fitzgerald, D., *Negotiating extra-territorial citizenship: Mexican migration and the transnational politics of community*. La Jolla, CA: 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Studies.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 George, S. M., *When women come first: Gender and class in transnational mig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 Gordon, M. M.,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Hewison K. and Young, K., *Transnational migration and work in Asia*. Routledge, 2005.
- Levitt, P., *The Transnational Villager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a.
- Levitt, P. and Waters, M. C., *The changing face of home: The transnational lives of the second generation*. Russell Sage Foundation, 2006.
- Min, P. G.,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Unive of California Press, 1996.
- Pries, L., *Rethinking Transnationalism: the Meso-link of organizations*. Routledge, 2008.
- Sassen, S.,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Smith, M. P. and Guamizo, L. E.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8.
- Smith, R. C., *Mexican New York: Transnational Lives of New Immigran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Vertovec, S., *Transnationalism*. London: NY: Routledge. 2009.

Vertovec, S. and Cohen, R., *Migration, diasporas, and transnationalism*,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1999.

Willis, K. and Yeoh, B. S. A., *State, Nation, Transnation*, NY: Routledge, 2004.

Yeoh, B., *State/Nation/Transnation: perspectives on transnationalism in the Asia-Pacific*, Routledge, 2004.

2. 논문

윤인진, 「해외한인의 민족정체성과 애착」.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 125-128쪽.

Al-Ali, N., Black, R., and Koser, K., "The limits to transnationalism: Bosnian and Eritrean refugees in Europe as emerging transnational communities." *Ethnic Racial studies*, 24 Vol. 4, 2001, pp. 578-600.

Beck, U., "The cosmopolitan manifesto." *New Stateman*, Vol. 20, 1998, pp. 28-30.

Bauböck, R., "Towards a political theory of migrant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7(3), 2003, pp. 700-723.

_____, "Expansive Citizenship-Voting beyond territory and membership."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38(4), 2005, pp. 683-687.

_____, "Stakeholder citizenship and transna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 normative evaluation of external voting." *Fordham Law Review*, Vol. 76, 2007, pp. 2393-2477.

Bruneau, S., "Diasporas, transnational spaces and communities." in *Diaspora,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Bauböck, R. and Faist 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p. 35-50.

Boccagni, P., "Private, public or noth? On the scope and impact of transnationalism in immigrants' every lives." in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Bauböck, R. and Faist, 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p. 185-204.

Carling, J., "The human dynamics of migrant trans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1(8), 2008, pp. 1452-1477.

Eve, M., "Some sociological Bases of transnational Practices in Italy." *Revue européenn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Vol. 24(2), 2008, pp. 67-90.

Faist, T., "Developing transnational social spaces." in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edited by Pries L. Ald. Avebury, 1998, pp. 36-72.

_____,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3, 2000a, pp. 189-222.
- _____,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What kind of dance partners?" in *Diaspora,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Bauböck, R. and Fais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p. 9-34.
- Foner, N., "What's new about transnationalism? New York immigrants today and at the turn of the century." *Diaspora*, Vol. 6(3), 1997, pp. 355-375.
- Gans, H. J., "Symbolic ethnicity: The future of ethnic groups and cultures in Americ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1), 1979, pp. 1-20.
- _____, "Second-generation decline: scenarios for the economic and ethnic futures of the post-1965 American immigrant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5(2), 1992, pp.173-192.
- Goldring, L., "The Gender and Geography of Citizenship in Mexico-US Transnational Space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Vol. 7(4), 2001, pp. 501-537.
- Gowricham, R., "Moral capital in Surinamese trans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7(4), 2004, pp. 607-621.
- Granovetter, M., "The Economic Sociology of Firms and Entrepreneurs." in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i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edited by A. Portes. New York: Russell Sage, 1995, pp. 128-165.
- Guamizo, E. L., "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social formation and the mirage of return migration among Dominican transmigrants." *Identities*, Vol. 4, 1997, pp. 281-322.
- _____, "The Economics of Transnational Liv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7(3), 2003, pp. 666-699.
- Guamizo, L. E., Portes, A., and Haller, W.,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Determinants of Transnational Political Action among Contemporary Migrants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8(6), 2003, pp. 1211-1248.
- Hansen, R. and Weil, P., "Introduction: Dual citizenship in a changed world: Immigration, gender and social rights." in *Dual Nationality and Social Rights and Federal Citizenship in the U.S. and Europe*, edited by R. Hansen and P. Weil. Oxford: Berghahn, 2002, pp. 1-13.
- Itzigsohn, J. and Giorguli-Saucedo, S., "Immigrant incorporation and sociocultural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6(3), 2002, pp. 766-798.

- _____, "Incorporation, Transnationalism, and Gender: Immigrant Incorporation and Transnational Participation as Gendered Processes1."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9(4), 2005, pp. 895-920.
- Itzigsohn, J. and Villacres, D., "Migrant political transnationalism and the practice of democracy: Dominican external voting rights and Salvadoran home town associ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1(4), 2008, pp. 664-686.
- Itzigsohn, J., Cabral, C. D., Medina, E. H., and Vazquez, O., "Mapping Dominican transnationalism: Narrow and broad transnational practic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2), 1999, pp. 316-339.
- Jones-Correa, M., "Different paths: Gender, immigr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98, pp. 326-349.
- King, R. and Christou, A., "Cultural geographies of counter-diasporic migration: perspectives from the study of second-generation 'returnees' to Greece."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 16(2), 2010a, pp. 103-119.
- King, R. and Christou, A., "Diaspora,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Insights from the study of second-generation 'returnees'." in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Bauböck, R. and Faist, 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b, pp. 167-184.
- Kivisto P., "Theorizing Transnational Immigration: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Effort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4(4), 2001, pp. 549-577.
- Landolt, P., "Salvadoran economic transnationalism: Embedded strategies for household maintenance, immigrant incorporation and entrepreneurial expansion." *Global Networks*, Vol. 1(3), 2001, pp. 21-41.
- Landolt, P., Autler L., and Baires, S., "From Hermano Lejano to Hermano Mayor: The dialectics of Salvadoran trans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2), 1999, pp. 290-315.
- Lee, Y. K., "National Heterogeneity and Transnational Linkage to Homeland: Korean Migrants in China." *Korea Observer*, Vol. 48(1), 2017, pp. 157-181.
- Levitt, P., "Social Remittances: A Local-Level, Migration-Driven Form of Cultural Diffus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2(4), 1998, pp. 926-949.
- _____, "Transnational Migration: Taking Stock and Future Directions." *Global Networks*, Vol. 1(3), 2001b, pp. 195-216.
- Levitt, P. and Jaworsky, B., "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3, 2007, pp. 129-156.

- Levitt P. and Schiller G.,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3), 2004, pp. 1002-1039.
- Lieber Matthew A., "Elections beyond borders: Overseas voting in Mexico and the Dominican Republic, 1994-2008." Ph.D.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2010.
- Lopez-Guerra, C., "Should expatriates vote?."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13(2), 2005, pp. 216-234.
- Mahler, S. J., "Engendering Transnational Migration A Case Study Of Salvadoran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2(4), 1999, pp. 690-719.
- Mahler, S. J. and Pessar, P. R., "Gendered geographies of power: Analyzing gender across transnational spaces." *Identities*, Vol. 7(4), 2001, pp. 441-459.
- Marcelli, E. A. and Lowell, B. L., "Transnational Twist: Pecuniary Remittances and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Authorized and Unauthorized Mexican Immigrants in Los Angeles County1."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9(1), 2005, pp. 69-102.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93, pp. 431-466.
- Mazzucato V., "Transnational networks and the creation of local economies: Economic principles and institutions of Ghanaian migrants at home and abroad." Nederlandse Organisatie voor Wetenschappelijk Onderzoek, grant number 410.13.010P, 2000.
- _____, "Operationalizing transnational migrant networks through a simultaneous matched sample methodology." in *Diaspora,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Bauböck, R. and Faist 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p. 205-226.
- Morales, L. and Jorba, L., "Transnational links and practices of migrants' organisations in Spain." in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Bauböck, R. and Fais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p. 267-293.
- Morawska, E., "Exploring diversity in immigrant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Poles and Russian Jews in Philadelph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4), 2004, pp. 1372-1412.
- Ostergaard-Nielsen, E. K., "Transnational political practices and the receiving state: Turks and Kurds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Global Networks*,

- Vol. 1(3), 2001, pp. 261-281.
- _____, "The politics of migrants' transnational political practic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7(3), 2003, pp. 760-786.
- Page, A., Fox, K., Biddle, S., and Ashford, B., "Evidence of cross-cultural validity for the 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4(4), 1993, pp. 585-590.
- Parreñas, R., "Long distance intimacy: class,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Filipino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 Vol. 5(4), 2005, pp. 317-336.
- Portes, A., "Globalization from below: the rise of transnational communities." Oxford: ESRC Transnational Communities Program Working Paper WPTC, 1998.
- _____, "Conclusion: Towards a New-World-The Origins and Effects of Transnational Activ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2), 1999, pp. 463-477.
- _____, "Introduction: the debates and significance of im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Vol. 1(3), 2001, pp. 181-193.
- _____, "Theoretical Convergencies and Empirical Evidence in the Study of Immigrant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7(3), 2003, pp. 874-892.
- Portes, A. and Zhou, M.,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The Annals of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 1993, pp. 1320-1350.
- _____, "Transnationalism and Development: Mexican and Chinese Immigrant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38(2), 2012, pp. 191-220.
- Portes, A., Escobar, C., and Radford, A., "Immigrant Transna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1(1), 2007, pp. 242-281.
- Portes, A., Guarnizo, L., and Landolt, P.,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2), 1999, pp. 217-237.
- Portes, A., Haller, W., and Guarnizo, L., "Transnational Entrepreneurs: An Alternative Form of Immigrant Economic Adap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7, 2002, pp. 278-298.
- Pries, L., "The approach of transnational social spaces: responding to new config-

- urations of the social and the spatial.” in *New Transnational Social Spaces*, edited by Pries L. Routledge, 2001. pp.7-14.
- Ramirez, M., Skrbiš, Z., and Emmison, M., “Transnational family reunions as lived experience: narrating a Salvadoran autoethnography.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Vol. 14(4), 2007, pp. 411-431.
- Rusinovic, K., “Transnational Embeddedness: Transnational Activities and Networks among First- and Second-Generation Immigrant Entrepreneur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34(3), 2008, pp. 431-451.
- Sana M., “Buying membership in the transnational community: migrant remittances, social status, and assimil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24, 2005, pp. 231-261.
- _____, “The de facto Transnationalizing of Immigration Policy.” in *Challenge to the Nation-State*, edited by C. Jopp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49-85.
- Schiller, G. N., “The Situation of Transnational Studies.” *Identities*, Vol. 4(2), 1997, pp. 156-166.
- _____, “Beyond Methodological Ethnicity: Local and Transnational Pathways of Immigrant Incorporation.” Willy Brandt Series of Working Papers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2/07, 2008.
- Schiller, G. N. and Fournon, G. E., “Terrains of blood and nation: Haitian transnational social field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2), 1999, pp. 340-366.
- Schiller, G. N. and Caglar, A., “Migrant Incorporation and City Scale: Towards a Theory of Locality in Migration Studies.” Willy Brandt Series of Working Papers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2/07. 2008.
- Schiller, G. N., Basch, L., and Szanton, Blanc C.,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645, 1992, pp. 1-24.
- _____,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68(1), 1995, pp. 48-63.
- Schiller, G. N., Caglar, A., and Guldbrandsen, T., “Beyond the Ethnic Lens: Locality, Globality and Born-Again Incorporation” *American Ethnologist*, Vol. 33(4), 2006, pp. 612-633.
- Schiller, G. N., Darieva, T. and Gruner-Domic, S., “Defining Cosmopolitan Sociability in a transnational age. An introduc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 Vol. 34(3), 2011, pp. 399-418.
- Scott, S., and Cartledge, K. H., "Migrant Assimilation in Europe: A Transnational Family Affair1."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3(1), 2009, pp. 60-89.
- Silvey, R., "Consuming the transnational family: Indonesian migrant domestic workers to Saudi Arabia." *Global networks*, Vol. 6(1), 2006, pp. 23-40.
- Snel, E., Engbersen, G., and Leeke, A., "Transnational involvement and social integration." *Global Network*, Vol. 6(3), 2006, pp. 285-308.
- Spiro, Peter J., "Perfecting Political Diaspora."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81(207), 2006, pp. 206-233.
- Vancluysen, K., Van Craen, M., and Ackaert, J., "Transnational activities and social-cultural integration of Moroccan and Turkish descendants in Flemish Belgium." paper presented at the XXVI IUU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Marrakech(Morocco), 2009.
- Vertovec, S., "Conceiving and researching trans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2), 1999, pp. 447-462
- _____, "Transnationalism and Identit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27, 2001, pp. 573-582.
- _____, "Migrant Transnationalism and Modes of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3), 2004, pp. 970-1001.
- Waters, J. L., "Transnational family strategies and education in the contemporary Chinese diaspora." *Global Networks*, Vol. 5(4), 2005, pp. 359-377.
- Waters, M., and Jimenez, T., "Assessing immigrant assimilation: New empirical and theoretical challeng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1, 2005, pp. 105-125.
- Wimmer, A. and Glick Schiller, N.,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Beyond: Nation-state Building, Migr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Global Networks*, Vol. 2(4), 2002, pp. 301-334.
- _____,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7(3), 2003, pp. 576-610.
- Yeoh, B. S., Huang, S., and Lam, T., "Transnationalizing the 'Asian' family: imagi-
naries, intimacies and strategic intents." *Global networks*, Vol. 5(4), 2005, pp. 307-315.
- Yoon, I. N., "The Changing Significance of Ethnic and Class Resources in Immigrant Businesses: The case of Korean Immigrant Businesses in

Chicago.”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Xxv. No. 2, 1991, pp. 303-330
Zolberg, A. R., “The next waves: migration theory for a changing worl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89, pp. 403-430.

3.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현황 2017(hec.go.kr).

국 문 초 록

이주자를 바라보는 분석틀인 초국가주의 관점은 이주자를 거주국 내에서만 파악하는 관점을 탈피하여 거주국-이주자-모국 간 3자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초국가주의 관점에 대한 개념적 지형을 짚어낸다. 초국가주의 논의가 펼쳐내는 이론적 특성과 현실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주자와 모국 간의 연계에 필요한 분석틀을 보여준다. 이주자와 모국 간에 진화하는 관계, 하나의 지리적 장소에 일치하는 공간이 아닌 중첩되는 사회적 공간들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개념과 쟁점을 검토한다. 중첩되고 확장된 사회적 공간 속에서 이주자에게 가용한 활동이 영역에 따라 어떻게 출현하는지, 종족성이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모국 연계를 부각시키는 초국가주의 활동은 직관적으로 거주국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질문한다. 상생과 상보의 입장이 긍정적 관계를 제시하는 스펙트럼의 하나의 극단이라면, 제로섬게임과 같이 하나의 충성심은 다른 하나의 충성심을 저해한다는 입장이 다른 하나의 극단을 형성한다. 동족 내부의 연대성과 감정적 애착을 전제하여 모국지향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종족성 개념은 초국가주의 분석틀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주자의 지향성은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거주국과 모국의 양자 요인의 적대적/우호적 관계에 의해 유동적이다.

투고일 2017. 6. 21.

심사일 2017. 7. 12.

게재 확정일 2017. 11. 27.

주제어(keyword)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 모국 연계(Transnational linkage), 한인이주(Korean migration), 디아스포라(Diaspora),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Abstracts

Theoretical Approach to Transnationalism and Social Integration

Lee, Yoon-kyong

Reflecting on the growing concern of the evolving relation between homeland and overseas populations, this article suggests an optic of transnationalism to probe into the triad relation of migrants, who embedded in the countries of origin, change and settlement. The stacking of disparate social spaces brings about new questions, ideas, and practices to the studies of Korean migr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 and emerging meanings in relation to social integration in the country of settlement and transnational linkage, primarily, to homeland, it addresses how the extant scholarship has built on them in search of novel theoretical assumptions, analytical frameworks, and conceptualization to capture this intellectual orientation.